

尹 “국가장학금 150만명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광명서 17번째 민생토론회...결혼·출산 부담 경감 등 지원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장학금 확대 ▲소득

공제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 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 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

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광주시당, 총선 1호 공약 발표...호남 민심 구애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지역 현안인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4·10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광주 8개 선거구에 모두 후보를 내는 등 호남 민심에 구애를 이어가고 있다.

주기한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과 4·10 총선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들은 5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시당은 이날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시당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 단계의 한 획을 담당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광주가 민주주의 성숙에 공헌한 부분을 분명히 하겠다”며 “5·18정신이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 정신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으로 역사성을 정립하고 모든 광주시민의 자랑으로 승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총선 브리핑

윤민호 “현재 ‘주52시간제’ 합헌 결정 환영”

광주 복구를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복구를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윤민호 예비후보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1주간 노동 시간 한도를 무려 69시간까지 늘리려다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의 ‘주 52시간제 규정 근로기준법 위헌 기각’ 충고를 깊이 새겨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해 근로기준법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며 “주 52시간제에 대한 현재의 첫 판단이다.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전원일치 현재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당시에 허울뿐인 ‘당사자 간 합의’를 강조했으나 현재가 ‘기술어진 운동장’이 현실임을 충고한 셈”이라며 “정부가 노동 시간



연장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주 4일제 도입 요구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또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로 사회다. 연간 노동 시간이 1800시간 대로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무려 122시간이나 많다”며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된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해야 저출생, 인구소멸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후보는 일주일 중 3일을 쉬는 ‘주말 3일제’ 공약을 내며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도입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신정훈 “청소년 여가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

나주화순 예비후보

신정훈 민주당 나주화순 선거구 예비후보가 혁신도시에서 유권자 연령층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20~40대 젊은 표심 잡기에 공을 쏟고 있다. 평균 연령이 34.3세인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최근 혁신도시 내 학교법인 설립, 나주 교육자유특구 설치, 명문고 육성 등 교육 활성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빛가람 어린이 스포츠 체력센터 조성’ 공약까지 제시하며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신 예비후보는 5일 실내에서 스포츠클라이밍, 미니 풋살, 양궁, 스크린 스포츠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공공 어린이 스포츠 체력시설을 대폭 확충해 정주 여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일대인 빛가람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에 맞는 놀이공간과 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신정훈 후보의 설명이다. 특히 나주시가 빛가람 호수공원 내 어린이테마파크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만큼 보완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거주민 평균 연령이 34.3세로, 만 9세 이하 인구가 혁신도시 인구(3만 9957명·1월 말 기준)의 14.4%에 달할 정도이다.

신정훈 후보는 “청소년 스포츠 여가시설을 대폭 확충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놀고, 행복한 삶을 즐기는 건강도시 나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배종호 “지방의원 줄서기 행태, 윤리 감찰 필요”

목포 예비후보

배종호 민주당 목포 선거구 예비후보가 지방의원들의 줄서기 행태를 비판하며 중앙당의 윤리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배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선중립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에도 당 소속 목포시의원들이 김원이 의원을 따라다니며 일탈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당 지도부에 윤리감찰을 요구했다.

배 후보는 언론보도를 인용,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17명 대부분이 김 후보 선거대책본부 사무실에 출근해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후보는 또 오는 7월부터 20일까지 열리기로 했던 목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이 갑자기 연기된 것과 관련, 특정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에 집중하기 위해 임시회를 연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경선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배 후보는 “중앙당 지도부의 윤리 감찰을 통해 의혹들을 명백히 밝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직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2. 전문인력(현직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직교사가 파견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보편적교육**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열매